

[ 아프리카 · 중동 비즈니스 정보 ]

# IBM, 케냐 현지 스타트업과 제휴, 소액 금융 서비스 제공 개시

IBM은 4월 18일 케냐의 스타트업 기업인 Twiga Foods와 제휴하여 블록 체인 기술을 활용한 소액 금융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을 발표했다. 블록 체인이란 상거래 관련 데이터를 정리한 「블록」을 네트워크로 연결된 여러 대의 컴퓨터가 체인 형태로 저장하는 방식이다. 블록은 암호화 기술을 이용하여 정확성이 확인된 상태에서 데이터를 대장(台帳)의 형태로 저장하는 것으로, 여러 컴퓨터에 대장(台帳)이 저장되기 때문에 "분산 대장"이라고도 불린다.

## 케냐 스타트업, 소액 대출 탑재한 B2B 플랫폼 선보여

스타트업 기업 Twiga Foods는 케냐의 농민과 소매점을 연결하는 농산물 B To B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으며, 농산물을 주문하는 소매점에 마이크로 파이낸스(마이크로 파이낸스는 빈곤층을 위한 소액 금융의 총칭)가 이 플랫폼을 통해 제공된다.

IBM이 개발한 알고리즘은 소매점의 과거 주문 내역으로부터 소매점의 신용도를 정하고, 블록 체인 프레임워크를 구현한 하이퍼레저 패브릭(Hyperledger Fabric)를 사용하여, 농산물 신청 접수부터 대출까지 실행한다.

220개의 소규모 소매점을 대상으로 8주간의 실증 실험을 한 결과에 따르면, 대출 건수는 220건 이상으로, 1회당 대출 금액은 평균 30달러였다. 대출을 받아 주문하기 때문에, 소매점의 주문량은 30% 증가하고 소매점의 이익률은 평균 6% 증가했다고 한다. 대출 상환 기간은 4일 또는 8일을 선택할 수 있으며, 대출 금리는 각각 1%, 2%로 설정되어 있다. 모든 절차는 단문 메시지 서비스(SMS)로 통보한다.

저금리를 실현시킨 배경에는 대출 금액이 소액인 점 외에 블록 체인 기술이 대출 절차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한 것을 들 수 있다. 또한 Twiga Foods가 플랫폼에서 축적한 소매 거래 내역 역시 큰 역할을 하고 있다.

본 사업과 제휴를 통해 IBM은 블록 체인 기술을 개량·개발할 수 있고, Twiga Foods는 플랫폼을 통해 더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케냐에서는 통신 회사인 Safaricom이 운영하는 모바일 대출 업체인 M-shwari을 필두로, Alternative Circle, Branch, Sheild 등 B to C 용 또는 Pezesha과 Uba pesa 등 P to P(Peer to Peer의 약자. 네트워크 단말기 간의 금전 대차(貸借)의 개념으로, IT를 활용하여 개인이 네트워크 상에서 자금을 대출받음) 모바일 대출 응용 프로그램이 많이 있지만, 마이크로 파이낸스(소액 대출) 개념이 탑재된 플랫폼은 케냐에서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 〈IBM과 Twiga Foods 제휴 플랫폼 홍보 이미지〉



자료정리: EMERiCs, 자료감수: 김수완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 ※ 출처

일본무역진흥기구, IBM, 현지 스타트업과 제휴, 소액 금융 서비스 제공 개시, 2018.04.27

<https://www.jetro.go.jp/biznews/2018/04/b341ea5b8edd4e57.html>